미래의 부루나들, 法을 說하다

[현장] 조계종 교육원, 제1회 학인 설법대회

"출가부터 지금까지 속세의 습관 때문에 끊임없는 고비가 옵니다. 그때 그때 고비를 극복하게 되고, 그런 경험이 반복돼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 지혜는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금후 스님〉

조계사 앞마당이 법(法)으로 채워졌다. 사자좌에 오르신 덕 높은 오늘의 스승님은 갈색 동정이 인상적인 학인 스님들이다. 20~30대 젊은 스님들의 설법은 무언가 달랐을까. 결론은 달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6월 1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특설무대서 개최한 제1회 학인설법대회는 미래의 부루나 존자들의 설법 능력을 경연하는 법의 현장이었다.

이번 대회에는 안거 중인 종립선원을 제외한 17개 종단기본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인 39팀(사미 24명, 사미니 16명)이 참여했으며, 오전 예선을 거쳐 12팀이 본선에 올라 자웅을 겨뤘다.

본선에서 경연을 펼친 참가자들은 현대에 맞는 설법을 보였다. 파워포인트(PPT)과 동영상은 기본이었다. 아예 대중가요 '네박자'를 개사해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청암사 승가대학의 명정 스님은 개사곡에 맞춰 '번뇌즉보리'를 설했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영어 법문을 준비한 학인도 눈길을 끌었다. 운문사 승가대학 선경 스님은 '행복하십니까'를

PPT·동영상 자료는 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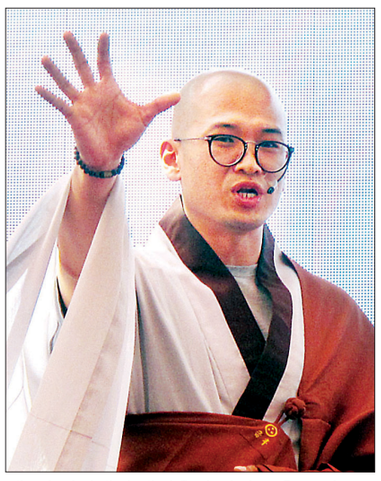
'네박자' 개사해 부르기도

자신의 출가 과정 풀어낸

해인사 금후 스님이 '대상'

"설법, 傳法위한 필수 능력"

주제로 영어 법문을 펼쳤다. 반대로 체코 출신의 휴정 스님(운문사 승가대학)은 유창한 한국말로 "본래성품은 생각 이전에 있다. 경상을 때리거나 손가락을 드는 선사에 대해 들을 때 대중들이 본래성품을 기억하기 바란다"며 선(禪)의 요체를 설명했다.



제1회 설법대회 대상을 수상한 금후 스님.



대회에는 본선에는 총 12팀이 참가해 설법능력 자웅을 겨뤘다. 행사 말미 무대에 오른 참가 학인 스님과 총평하는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낸 법문들은 대중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의 영관 스님은 자신이 어떻게 불교를 만났는지를 재치있게 풀어냈다.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수학 중인 금후 스님은 "가족 친지는 물론 친구, 선후배까지 모두에게 소문내고 온 출가길에 물러설 수 없었다. 3천배를 하라고 했다가 일이 많으니 270배만 하고 일을 하라고 했던 선배 행자, 매일 울부짖게 해준 윗반 스님까지 그 '덕분'에 출가 사문의 길을 간다"고 말해 좌중을 폭소케 했다.

그러면서 "덕분에, 덕분에 부족한 자질을 가지고도 출가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자만과 착각을 없애고,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이해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연기를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시간여 진행된 본선 이후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총평에서 설법의 중요성을 힘줘 말했다.

설정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해도 설법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최근 한국불교가 위축된 것은 부처님의 법문과 진리를 전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며 "이 같은 설법대회는 좋은 사례이고, 한달에 2~3번 이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법대회 참가자들도 설법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영관 스님(동국대 서울캠)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도반 스님과 밤새워 토론하고, 공부했다. 이 과정을 통해 더욱 친해질 수 있었다. 또한 법문을 하시는 스님들에게 존경심이 생겼다"며 "교육원에서 다음 경연은 연극대회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치열한 경연 끝에 최종 우승인 대상은 자신의 출가기를 재미있게 풀어낸 금후 스님(해인사)이 차지했다. 스님은 이번에 처음 도입된 청중평가단의 공감지수에서 98.8점을 기록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후 스님은 "실수 많았고, 많이 떨었는데 대상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대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난 출가 과정을 거품없이 써봤더니 재미가 있었다. 이를 잘 살린 것을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영관(동국대 서울캠)·세광(동학사) 스님이, 우수상에는 휴정(운문사)·선경(운문사) 스님이, 장려상에는 도안(운문사)·현수(중앙승가대) 스님이 각각 수상했다.

한편, 조계종 교육원은 학인들의 전법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염불시연·외국어 스피치·토론 대회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공식으로 화합되게 하소서"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5월 27일 신축 강당 상량식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창건 30주년과 대웅전 낙성 20주년을 기념하며 함께 열린 제주지원 신축 강당 상량식이 5월 27일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봉행됐다.

이날 상량식에는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을 비롯해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 캐나다 토론토지원 청각 스님 등 국내외 각 지원 지원장 스님들과 본원 대중 스님들, 오영훈 국회의원과 고경실 제주시장, 김태석 의원, 박종수 현대불교신문사 사장 등 정관계 인사도 참석했다.

상량식에서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은 치사를 통해 "대행 큰스님께서 제주땅에 법을 펴신지 30년이 됐다. 큰스님은 제주시장통에 선원 문을 열고 제주의 아픈 역사를 함께 아파했고, 그 아픈 역사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 원력을 이어 지원장 스님이 신도들과 함께 불사를 이어갔다"며 "대행 큰스님께서는 불사 걱정이 생기실 때면 '신도들의 마음이 있다면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셨다. 오늘 강당 불사 뿐만 아니라 그간에 여러 불사가 이뤄진 것도 제주신도들의 원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공로를 치하했다.

오영훈 민주당 국회의원은 "그동안 불교가 대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제한돼 있었다.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이 문화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강당

연건평 520평, 지하2층 지상3층

템플스테이, 문화체험장으로 활용

을 세워 제주시민들에게 불교가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저 또한 제주도를 불국정토로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다"고 축하했다.

고경실 제주시장은 "오늘 상량된 강당은 세상 사람들이 한마음을 배우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중심 공간이 될 것"이라며 "높은자 낮은자의 구별, 있는자 없는자의 구별로 인해 우리 사회에 아픔이 커지고 있다. 공식으로 화합하고 한마음으로 깨달아 사회 아픔을 없애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은 5월 27일 창건 30주년과 대웅전 낙성 20주년을 기념하며 신축강당 상량식을 봉행했다.

제주도의회 불자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원은 축시를 활용해 상량을 축하했다. 김 의원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고, 사람이 있다. 스스로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이들이 있다'는 말이 있다. 오늘 강당 불사와 함께 불자로서의 정진도 끊임없이 이어가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지원 지원장 혜묘 스님은 "이날의 인연공덕으로 여러분들의 내면의 불사도 꼭 이루어지시기를 발원한다. 저희도 도량불사와 함께 사부대중을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지극한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정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에 신축되는 강당은 지하 2층 지상 3층의 연건평 520평 규모로 한식 지붕에 태양열 발전이 가능한 최첨단 시설로 설계됐으며 2016년 3월 건축 허가 후 2016년 6월 기공식이 개최된 바 있다. 신축강당 3층의 대강당은 최대 25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신도단체 모임방, 다양한 문화공간이 자리해 템플스테이와 각종 문화행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제주=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한일불교協, 日 미온적 태도 '유감' 표명

교류대회 연기 요청·청소년 교류도 미흡

11월 또는 내년 개최키로



한일불교계 교류에 대한 일본 측의 미온적 태도에 한국 측이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불교계의 교류 의지를 되묻기로 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5월 31일 서울 견지동 한일불교협의회 회의실서 이사회를 열고, 오는 6월 예정된 제38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사진〉

일한불교교류협의회는 지난 4월 "북한과 미국 간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일불교협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우선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한편, 일본불교계에 올해 참가 여부를 물어 오는 11월 개최하거나 내년으로 행사를 미루기로 했다. 일본 측은 6월말 대회 참가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사회서는 지난해 제37차 일본 연력사 대회서 양국이 합의한 '청소년 교류' 준비에 미온적인 일본불교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한국불교계는 오는 8월에 맞춘 청소년교류대회 사업안을 일본 측에 전달했으나 일본불교계는 "아직 참가 계획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상임이사 월도 스님(천태종 총무부장)은 "지난 대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일본 측에서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에 항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이사 스님들도 이에 공감하며 한국불교계 입장을 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대회 참가와 양국 교류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일본불교계에 유감을 전하고, 적극적인 교류 의사를 묻기로 결의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